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3. 20.(수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교통안전복지과	담당자	·과장 운영중, 사무관 김태운, 주무관 홍성욱 ·☎ (044) 201-3863, 3864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대형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버스,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('17.1월 교통안전법 개정, '17.7월 시행)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 - 신규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제작기준에 포함되어 제작단계부터 장착되어 출시되고 있으며,
 -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장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'19.12.31일까지 하고, '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%(상한 40만원)를 지원*하고 있습니다.
- * (대상) 기존 운행 중인 9m 이상 승합차 및 20톤 이상 화물·특수차
 (예산) 300억원(총 15만대, 국비·지방비 50:50 매칭 지원), (기간) '18~'19년
-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과 보조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점을 운수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대상 차량이 조속히 장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,
 - 내년 초에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함께 미장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국민일보, 3.19.) >

◆ 대형차 안전 불감.. 차로이탈 경고장치 75% 미장착

- '20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불구.. 대형차 차주들 무관심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교통안전복지과 김태운 사무관(☎ 044-201-38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